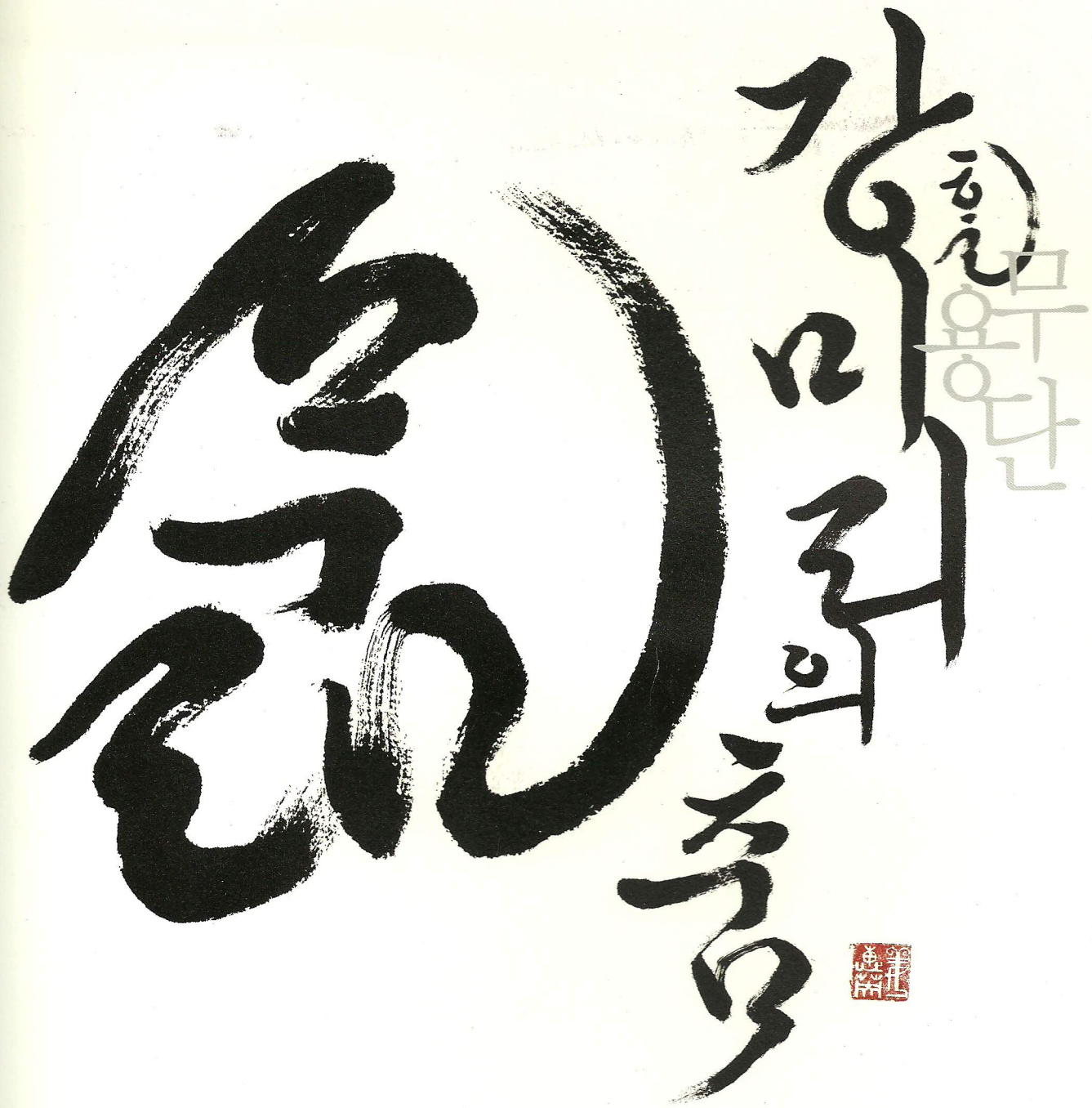


강미리무용단  
강미리의소리



2006 11.7<sup>화</sup> — 11.8<sup>수</sup> Pm 7:30 금정문화회관 대강당

주최 | 강미리<sup>회</sup>무용단 • 후원 | 부산광역시·부산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

# 창의적 접근이 커스너언만

희노애락에 숨겨진 고뇌와 환희들, 그 영혼 자극에 맞춰 살 때도  
틀을 짜왔고, 세월의 흐름만큼 올라가는 점점 조여, 그 어둠에  
따라 사람의 모양도 변하고 있다.

자신의 의지와 스스로의 바람마저 지워버리고 자식을  
에워싼 온갖 실타래는 살이다.

실타래를 품어헤쳐 자아를 창조된 해방의 갈고리, 살썩음이다.  
살썩음, 어둠의 품어헤치고, 맨몸의 품이다.

이 품어헤침과 품은 하나로 품이요, 품은 해방된 세상으로 가기 위한 수단  
이요 지름길이다.

인간성, 삶의 품은 자아의 정체를 창조하기 위한 의지  
인간성, 회복을 위한 고귀한 몸짓이다.

작품은 정제되지 못한 사람의 언덕과 인간성.

회보의 바탕이, 이들이 대조를 이루어, 지고과 자아에 대한 치유와 조율로  
자기성, 품을 통해 어둠의 품어헤치고, 분출과 정화로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몸짓, 자기과 자아에 대한 치유와 조율로  
이것이 자아의 정체성을 창조하기 위한

사람의 품이다.  
사람의 품으로 표범의 신에 갇힌 후려진 보석은

품어내고, 정화되어가는 그 자체를 꾸밈없이 하나하나의  
추적으로 끌어내고 털어내고 치유한다.

찾기 위한 모험한 치유의, 작품을 이 것이 자아의 정체를  
『품』의 외침이다.

스태프 | 안무김미리 대본김준기 음악최현영부서장최현영 예술감독최현영 무대미술가최현영 연출조영준 조명장영선 사진이진화 비디오킴혜연 디자인김희라  
출연자 | 민홍식 김미리 정은주 이우리 최수연 김경미 최계원 신지현 권혜정 김혜진  
음악 연주자 | 박현영 허지형 이종희 신계현 신정일 이진희 진형준

# 결

생명의 울림에 밀려나는 잡티들  
그 등지에선  
엮어진 사슬이 풀려 응어리가 삭히고  
매든진고뇌가 풀려 청아함을 띠  
우네

빈칸의 터에

세월처럼 빛이 흐르니

억만년의 접이 모여

생명이 잉태되고

빈칸의 터에

세월처럼 빛이 쌓이니

# 해

질서의 과실이 영롱이고

혼돈의 열매가 주렁 맺혀

겉과 속이 뒤엉켜 뒤엉켜

갈길몰라 헤매이면

순리를 지워가는 영혼의 과육

미덕을 잃어가는데 품의 자태도

화난물줄기에 살려 거꾸로 거스리고

맺힘의 속내마저 터뜨려

울림이 내일을 겨우 낸다.

제 팔도 제 발도 제 몸도 제 마음도

이리 돌고 저리 돌고 이리 돌고 저리 돌고

놀란 생명은

생명의 끈을 놓고

우렁도 짐서리를 인양고 제 길음을 잊고

어구적 거린다.

# 로

천사의 소리가 터를 깨우면

말씀으로 맺힌 이슬은

이슬

KAN  
M E  
R E  
DANC  
SOCIETY

[ hál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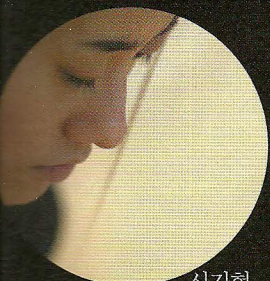
# 공간 | 김준기

한을한을 풀려가는 생명의 아인사  
일상의 그리지들  
맹목의 고통에서 풀림의 해방을  
추기 시작한다.

빛의 어둠이 어둠을 누비고  
아스라이 꿈틀이는 생명  
어둠도 내뻗고 자기도 내뻗고  
무의의 땅을 누비고  
맹목의 방울을 터트리고  
제 꼴차이 너를 너를 제 꼴대로 너 풀너 풀



김준기, 1970년 11월 15일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미술학과 졸업. 1997년 '공간'을 창간하고, 2007년부터 '공간'을 창간하여 현재까지 '공간'을 창간하고 있다.



신지현



김혜진



민춘식



김경미



강미리



이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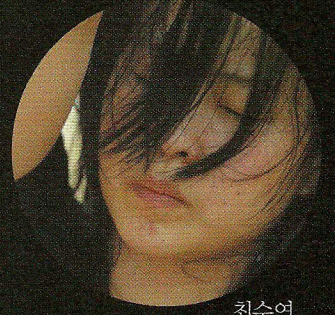
정은주



권혜정



최재원



최수연

Kang Mee Ree Dance Society [ hál ]

장전동 산30번지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 Tel 051.510.2948 · Fax 051.581.3695 haldance@hanmail.net